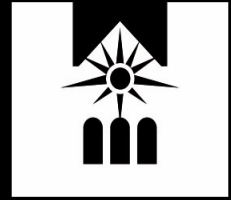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Currently suspended.*

Wednesday

5:30 - 6:30 pm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2, 2021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We also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8)

As he is nearing the end of his life, Joshua wants to make sure his people will remain faithful to God. And so he asks them, *Will you serve the Lord your God, or the foreign gods of your neighbors?*

We already know the outcome; we know how often the Israelites failed to keep their covenant with God. Yet it was not actually these particular people who turned away from God but “a later generation” who “did not know the Lord or the work he had done for Israel” (Judges 2:10).

So how do the people gathered before Joshua that day keep their covenant? Notice that when they make their vow, they recall what God has already done for them. He has led them out of slavery, protected them on thei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and driven out the people who dwelt there (Joshua 24:16-18). Perhaps it's because they are so aware of God's goodness, faithfulness, and mighty deeds that they are able to make—and keep—their promises to him.

We all struggle at times to keep our commitments to the Lord. How often have we made a resolution in morning prayer only to break it by noon! But when we face the inevitable temptation to serve other “gods,” perhaps we can follow the lead of these Israelites by recalling what God has done for us.

The next time you're battling a temptation, you could recall the Father's goodness in sending his Son to become one of us. Or his mercy in forgiving your sins. Or the gift of Jesus' Body and Blood in the Eucharist. Or the “mighty deeds” he's accomplished in your own life.

Reflecting on such truths will give you greater confidence that God's abundant grace can help you overcome every sin. Then, filled with love and gratitude, you'll be able to say wholeheartedly with Joshua,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24:15).

“Father, let me never forget what you've done for me.”

Psalm 34:2-3, 16-21

Ephesians 5:21-32

John 6:60-69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INTENTION FOR
EVANGELIZATION FOR AUGUST:**

The Church



Let us pray for the Church, that She may receive from the Holy Spirit the grace and strength to reform Herself in the light of the Gospel.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ugust 21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ugust 22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Mass 10:30 a.m. Special Intention
Monday, August 23 St. Rose of Lima	7:30 a.m. Special Intention
Tuesday, August 24 ST. BARTHOLOMEW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August 25 St. Louis of France St. Joseph Calasanz	7:30 a.m. Special Intention
Thursday, August 26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August 27 St. Monica	7:30 a.m. Special Intention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4	성체성가	153
봉헌성가	220	마침성가	65
제1독서	여호수아기 24,1-27.15-17.18-20	복음 환호송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알렐루야	
제2독서	에페소서 5,21-32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요한 6,60-69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6.68).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는 9월에 개강합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에 관심있는 봉사자는 Koreanmadonna@hotmail.com (마르티나 수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21-2022년 예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현금 봉헌** 자동이체 현금 봉헌 방식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다. 성당 웹사이트(https://www.georgetownepiphany.org/)에 “Online Giving”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아끼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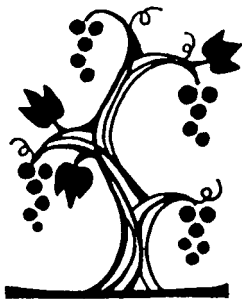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성녀 로사] 축일 8월 23일

1 586년 4월 20일 페루 리마의 에스파냐 가문에서 태어나 이사벨 플로레스 데 올리바(Isabel Flores de Oliva)라는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받은 성녀는 14살 때에 로사(Rosa)라는 이름으로 견진성사를 받았다.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그녀는 양친의 결혼 계획을 끝내 반대하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델 성녀로 삼았던 시에나(Siena)의 성녀 카타리나(Catharina)를 본받기 위해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결국 성녀 로사는 도미니코회 제3회에 입회했다. 하지만 부모의 생계를 도와야 했기에 부모의 집 정원에 통나무집을 마련해 은수생활을 하며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신비로운 특은을 비롯해 환시를 보았는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자 사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그녀를 심사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들은 조사 끝에 성녀 로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인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성녀 로사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그녀의 집 정원은 마치 영성 센터처럼 변했다. 건강이 나빴던 관계로 성녀 로사는 돈 곤잘로 데 마사와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3년 동안 리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1617년 8월 예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선종하였다. 그녀는 교황 클레멘스 10세(Clemens X)에 의하여 1671년 4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페루와 남아메리카, 서인도 제도, 필리핀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서왔고, 테베레 강에 있는 성(이졸라 티베리나)에 성 바르톨로메우스 성당을 세워 그곳에 모셨다. 성인의 두개골 일부는 123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로 모셔져 그곳에 성 바르톨로메우스 대성당이 세워졌다. 그의 축일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6월 2일에 지내고, 라틴 서방교회에서는 8월 24일에 지낸다. 그는 미장공, 가죽 세공인, 푸줏간, 제본 업자 등의 수호성인이며, 유럽에서는 14명의 '구급(救急) 성인'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경통을 앓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8월 24일

사도 성 바르톨로메우스(Bartholomaeus, 또는 바르톨로메오)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공관복음(마태 10,3; 마르 3,18; 루카 6,14)과 사도행전(1,13)에서 예수님께서 뽑은 열두 사도 명단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 외에 달리 성경에서 알려진 바가 없다. 히브리 말로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우스'는 '톨마이'(Tolmai) 또는 '탈마이'(Talmai)의 아들이란 뜻이다. 9세기경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래아 카나 출신의 나타나엘(Nathaniel)과 성 바르톨로메우스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성 나타나엘은 사도 성 필립보(Philippus, 5월 3일)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요한 1,47)라는 칭찬을 들었다.

에우세비우스(Eusebius)의 "교회사"에 의하면 그는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히브리어로 마태오 복음을 저술했다고 한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성령강림 후 사도들이 세상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 바르톨로메우스는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 신자들에게 마태오 복음 사본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아시아 중남부의 리카오니아(Lycaonia)를 비롯해 카스피해(Caspian Sea) 남쪽, 오늘날의 이란 북부 지역까지 가서 선교했다는 전승도 있다.

성 바르톨로메우스는 사도 성 유다 타대오(Judas Thaddaeus, 10월 28일)와 함께 아르메니아(Armenia)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데, 고대 아르메니아는 이미 4세기에 최초로 복음화가 된 나라였다. 2000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 10월 22일)는 아르메니아 복음화 1,700주년을 기념해 방문하기도 했고, 사도 성 바르톨로메우스와 성 유다 타대오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수호성인으로서 공경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성 바르톨로메우스는 그 지역 왕의 동생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왕실의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순교 방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창에 찔려 순교했다거나 자루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다는 등 여러 전승이 있으나, 산 채로 살갓을 벗기는 고통을 당한 후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칼과 벗겨진 살가죽이 그의 상징이 되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Sacellum Sixtinum)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심판관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살가죽을 두 팔로 봉헌하는 모습으로 사도 성 바르톨로메우스의 모습을 표현했다.

사도 성 바르톨로메우스의 유해는 507년경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Anastasius I)가 오늘날 시리아 동부에 있는 고대도시 두라에우로포스(Dura-Europos)로 모셔왔다. 그 후 최종적으로 983년 오토 3세(Otto III) 황제에 의해 로마로 모